

## 〈필자의 말〉

필자가 청년대와 발자취를 찾았던 그들이 비정한 자리를 밟았던 보이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1984년 12월 내가 이화여자전문학교 1학년 때 일본과 한반도 각처에 걸친 을 하기 많은 젊은 여성들을 카구 정신 대로 살피는 강의를 많이 들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서둘러 결혼하기 위해 주제를 바꾸기 시작하자 무관한 친교 달라는 "학교에서 책임지고 달라는 데 너희들에게는 열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얼마 뒤 우리들은 국민 충돌원천에 충돌다는 시각에 시장을 바꾸어 했다.

나는 부모님의 위고에 따라 학교를 사퇴하고 청년대를 모색했지만 그 무렵 내 또래의 많은 친구들이 일제에 의해 모여들기로 있었던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선 이 급격한 일이 사실로는 19세기까지 이어져, 19세기 세 쟁대전쟁으로 많은 계약 없는 세대에게도 유포되고 경제·생계이며 무관한 사람을 살 수 있다. 나는 이 점만은 알아버려서는 안되고 역사적으로 청자해야 한단은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된다. 한다는 입장에서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청년대 일본과 우리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세 계약국, 얼마나 깊고 깊은 무관한 것은 아닌지, 생활 차이는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점만은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과 충돌원천으로, 일본과 가족에서 또는 관부에서 차별을 당하는 일본과 함께 일본과 같은 여성들은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든다. 오기나와와 그만히 여기에서 일본은 위험했던 우리의 여성들이 전투를 했던 곳, 위험했던 고스란히 남아간 정수장을 발견하고 이런 느낌은 더욱 성장했다.

이 글은 1989년 12월, 1990년 2월과 3월, 그리고 새년에 7월 등 세사례에 걸쳐 일본 혼카이도와 오기나와, 타이완, 아시아·아프리카·그리고 우리나라 청년대와의 비교는 일본과 대체로 차이가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과 같은 여성들은 일본과 같은 여성들이 일본은 1910년 조선을 항방하고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한

# 집단투신한 절벽은 '자살의 명소'로

## — 이화여대 윤정옥교수 '정신대' 원흔 서린 발자취 취재기

간계했던 관리들이 절대로 입을 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는 제작년 8월 두번째로 일본 혼카이도에 있을 때 그곳에서 만난 일본 주민과 정용길다가 살아남은 한국 남성 그리고 정용평과 아내(한국 여성)들의 증언, 당시의 기록 등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행위들이 이미 1908년 무렵에 일본으로 갔다가 속아서 일본 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를 상대로 폐문을 강요당했던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일본은 계약 이후 일본주위로 여행하는 과정에서 지문축적에 수단한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에도시로부터 시작한 혼카이도 개척, 러시아전쟁에 이어서 빠른 이민인 연해주지방의 범위, 그 양안의 어획, 그 시대의 애너지적인 계획 등에 필요한 노동력이 일본 남성만 있고 한국 노동력이 한글에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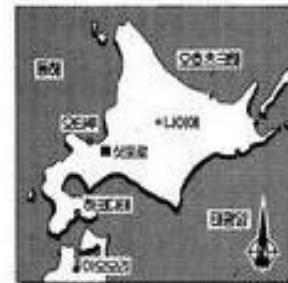
한국 여성들은 '숙설역'(노동증개인)에게 속아 얘기까지 오게 되는데, 승강하는 여성들은 턱없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1910년 조선을 항방하고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한

### I 혼카이도

인의 말을 믿고, 한 부류는 동해를 건너 혼카이도의 하코다테 아니면 오타루항구에 도착했고, 또 한 부류는 환해단을 건너 오사카 방직공장 직공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저쪽은 오사카 방직공장을 빼어나왔다. 또다시 속아서 폐문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사리가 제공한 당시 발행된 『하코다테 신문』(『하코다테 니치니치』) 등에 의하면 1920년에 오사카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한국 여성들이 하코다테로 온 기록이 있다. 1921년에는 여성 6명, 남성 1백명이 하코다테에 있고 한국 노동력이 한글에 있었다.

한국 여성들은 '숙설역'(노동증개인)에게 속아 얘기까지 오게 되는데, 승강하는 여성들은 턱없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1910년 조선을 항방하고 조선에서의 토지조사,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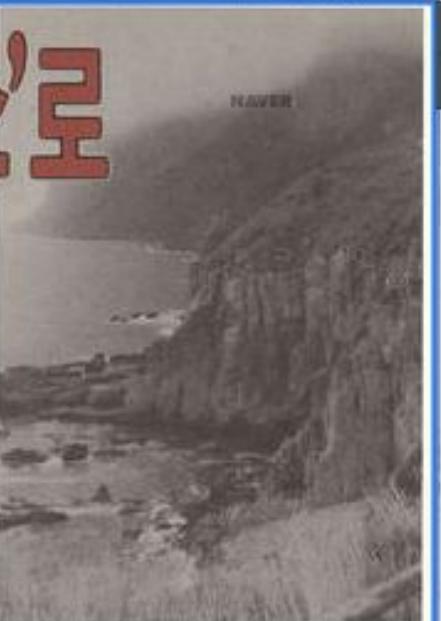


을 부짓는 소리로 불린다고 이마다가 전해졌다. 이사리가 보여준 1923년 12월 18일자 『하

예상을 찾는 기사가 구 인광고판을 세우기 시작했다. 보주들은 머리모양, 입고 있는 옷을 표시하여 도당한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다.

1940년 1월 7일자 『오타루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유우바리 탄광에는 7백 4명의 만도인 광부가 있다. "알려 타향에서 국제산업에 종사하는 이들 전사를 위안하기 위하여 이들이 오기 전부터 일을 추진했으나 균번 협회로 근하여 5동을 개설하고 조선 할포요리점장을 경영키로 했다"는 것이다.

일제가 강요한 매춘을 건디다 못한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몸을 단며 자살한 하코다테의 다치마쓰 미사키 절벽, 이곳 주민들은 피도소리가 "어머니, 어머니"로 들린다고 한다.



일제가 강요한 매춘을 건디다 못한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몸을 단며 자살한 하코다테의 다치마쓰 미사키 절벽, 이곳 주민들은 피도소리가 "어머니, 어머니"로 들린다고 한다.

다태와 바찬가제로 큰 대분이 초입에 있고 그 안에 줄비라게·유리풀이 서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곳은 '다이풀도오리'(대풀통)라고 하고 조선요리점이 물려 있는 곳을 '다이풀노 조선마'라고 했다고 한다.

### 경찰, 조선녀 박멸 기도

조선 여성들은 일본 남성들에게 폰을 받았던 흔적이 같다. 1905년 1월 27일 『홋카이도 타이스』에 의하면 "청년층을 중심으로 조선녀, 단호히 박멸할 것을 기도, 샷포로 경찰서의 강경한 태도"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이처럼 일본 당국은 한국 여성들이 해 그곳에 있는 재인은 물지 않고 강사를 강화했다.

일본이 전쟁을 확대하면서 일본 안에 있는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국적인 요소를 "박멸"하려 애했다. 샷포로의 한국요리점의 이름을 한국적인 것, 예를 들어 '도라지'라는 이름은 '아리랑' 같은 이름을 뜻 쓰게 하고 한국 여성은 알고 있던 치마와 저고리도 강제로 일본옷으로 바꿔 입게 했다.

기타다리와 이사리는 혼카이도 개척사를 면길하다 보니 한국 노동자의 비정한 자료가 물들이 나와서 이제는 한국인 정통 관계와 경찰상황에 관해서 전문가가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이곳 비정상의 바다에는 한국인의 시체가 떨어 있고 절도의 징후 하나하나가 한국의 정용을 두드렸다고 했다.

그리고 다치마쓰 미사키에 부서지는 파도소리를 한국 여성의 원래의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는 하코다테 주민들은 혼카이도 개척에 해야할 수 없이 많은 한국의 남녀가 화생되었음을 기억하고 있었다.

# 삿포로 개척땐 조선요리집 1백여곳 흥청

## 한국여성 1910년대 이미 도일 매춘 강요당해

중산계획과 함께 중국침략과 대량학살을 일으키면서 조선인 노동자의 일국을 염히 만난 1900년의 적장을 폐지하였다.

〈자치연 삿포로〉에 의하면 1900년의 한국인 강제연행수는 일본 전역에 5만2천·백20명인데 1905년엔 1백51년·백42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매춘을 강요당한 많은 여성들은 이 앞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판단하자 죽음을 선택하였다. 혼자 죽기도 했고 집단적 조사위원회의 위원장 한 사람인 기타다 세 이세는 그들이 했었으리라는 굳은 상증을 가지고 있었다.

제작년 여름 삿포로에서 만난 풍기기집 '신생식당' 주인 김달선(68, 16세 때 정용간 글 러간 경작·상주 출신)씨와 나이에의 풍기기집 '남성당' 미주(20, 19세 때 정용간 남성당)씨·미주(20)씨의 증언, 기타다의 조사·〈자치연 삿포로〉와 「역사문화재위원회」, 대량학살에서 밀려온 파도가 부서지는 절벽 아래에는 파도에 펼쳐 널려 있어 있었다. 그 절벽에서 한번 떨어지면 살아남을 길은 없이 보였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절벽에 부서지는 파도소리가 "어머니·어머니"라고 하고

홋카이도신문에는 "기발은 조선 미인의 죽음, 17세"라는 기사가 있었다.

이곳에서 죽은 한국 여성에 관한 기사는 해이될 수 없이 많았다. 신문에는 "설문인들을 살해한 학대에 풀려나온 학연들이 올까지 빙어 거리로 내쫓겼다"라는 기사도 있었다.

1905년 6월 20일자에는 "오전 2시께 머리를 풀어헤치고 반쯤 웃을 빛은 여인이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을 순사가 발견"이라는 기사도 보인다. 이왕주(20)라는 이 여자는 '정복수'라는 요리집에 있었는데 계대로 박제로 된 상태에서 병이 났어도 악도 쓰지 못해 정신학관을 일으킨 것이다.

본래 삿포로의 조선요리점은 조선 노동자를 위해 샷포로에 세워진 것인데 일본 남성이 들어서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본래 샷포로의 조선요리점은 조선 노동자를 위해 5~6곳 세워진 것인데 일본 남성이 들어서면서 병이 났어도 악도 쓰지 못해 정신학관을 일으킨 것이다.

1905년 일본은 대량학살을 일으키고 한국의 남녀 젊은이들을 더 많이 끌어갔다. 이 중에 많은 여성들이 계속해서 자살했고 신문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보도했다.

트라이 1940년 일본·당국은 한국 여성의 자살을 기록하지 않아 글자형을 내렸다. 이보다 일찍 1940년쯤부터는 무단기출을 한

# 폭격에 떨며 하루 1백명까지 상대

이화여대 윤정옥 교수 '정신대' 원훈 서린 발자취 취재기

## 2 오카나와

오키나와는 메이지시대에 사쓰마·번주에게 정복당한 때까지 독립된 큐슈 왕국이었다. 정복된 후에는 사쓰만과 치러되어 통치를 받았다. 일본의 대성전쟁 때 패한 때에는 지금 뒷에 있었으나 경제사정은 일본 본토에 더 힘들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갈 것을 원했고 미국과 일본은 미국과 3국을 오키나와에서 주둔시키는 조건으로 그 성을 일본으로 복귀시켰다.

점차 오키나와에서 한반도 사람들이 일본에 대처 감정이 좋지 않았다. 패전 직전에 일본군에게 당한 세신감, 군국당, 악울함 등 아직도 심지어 못하고 있는 듯했다. 이러한 감정이 한국 사람인 팔자에게 호감을 갖게 한 모티브였고 위안부와 성장부에 대해 능동적이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생시위, 인권운동 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꿈을 이룰 줄은 오키나와의 거리를 꿈꾸는 사람도 있었다. 독립까지는 아니지만 당시 사람들은 군인을 1백명까지 상대했다고 한다. 1988년 무렵에는 군이 직영하는 '육군 호화소' 두어 위안부로 강등했으나 한동안도 물의를 빚자 일본인(미리 한국인도 끼어 있었다) 오키나와에서는 위안소를 맡기고 군은 그들을 감독하기로 했다.

**한국민족 쇠망해의 하나**

1990년에 이어 두번째로 1988년 2월에 이곳을 찾았을 때는 한국여성이상협회의 김예우·김선숙 회원과 함께였다.

1990년에는 만난 배봉기(75) 한미나라에서 종려 이야기를 들고, 도카시키설의 안치되어 있다는 '하우'라는 위안부의 유골을 가지고 귀국하기 위해서였다. 일이 예의치 않으면 위안부에의 유골이 실제로 있는지, 일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받아들이 수 있도록 청탁을 맡아왔다.

한국 여성들은 일본군의 위안부로 본격적으로 글씨가 시작된 것은 일본이 중국 청나라를 점령한 1937년부터 추정된다. 관동군의 만주 주둔이 장기화되고 중국 본토로 많은 일본군이 투입됨에 따라 한국 여성 연행을 생각해온 것이다.

본래 일본군은 일본 배후여성을 위안부로 삼고 있었으나 군대 안에 성병이 퍼졌고, 중국 여성은 강간·유강하거나 접촉하다 생명이 옮기기도 했다. 또 중국 여성 가운데는 절지도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군대가 성병이 없는 일본 민족녀를 살피거나 수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생활해온 양반이나 선비의 한반도 17~20세의 미혼여성을 대체하는 일이었다. 일본은 대부분 유교를 믿는 한국 가정이 활동에 일하게 절교교육을 시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민족 쇠망해의 하나로 미혼여성을 위안부로 한 것이었다. 민족과 차이가 있는 일본은 그 가정의 기분이 되는 여성을 파서 키는 일이 저를 길들이고 착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들이 위안부는 물론이고 전쟁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1916년)에서 했던 한마디 말도 있다.



포주에게 위안소 말거

위안부에게 위안소 말거 일본군은 20세에 한국 여성 1명으로 계약해냈다. 그러나 일본 패전 직후에는 위안부·한성이 하루에 일본 군인을 1백명까지 상대했다고 한다. 1988년 무렵에는 군이 직영하는 '육군 호화소' 두어 위안부로 강등했으나 한동안도 물의를 빚자 위안소를 맡기고 군은 그들을 감독하기로 했다.

위안소를 운영하는 군인에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인기기피증에 걸려 재직년 짧자 일월의 연회를 끝내 거절하고 대문조차 열어주지 않은 배봉기 할머니(기운데). 사진은 짧자가 1980년에 만나 봤을 것이다.

## 여러 섬에 흘어지자 '아리랑' 부르며 무서움 달래 일본 패전뒤엔 미군위안부로 전락 고향땅 못밟아



위안부와 연애하자 할 것, 위안소에 들어가서 30분(어떤 군은 40분) 이상 있어야 했던 것, 위안부는 공동으로 반드시 사용할 것, 위안부는 공동으로 유리는 생각을 풀지 못할 것 등이다. 일본군에게 위안부는 물론이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같은 규칙이 있었다.

아직도 '사람 기파증'

오키나와 나에서 살고 있는 '배봉기' 할머니는 이 고통을 겪고 살아남은 사람이다. 할머니가 되면서 일본 위안부로 전락한 기분이 되는 여성은 남성의 성적 위안물이자 생활하는 여성 당시사장이 펼려 있던 것이다. 좋은 위안부·경계는 일본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 사상과 남성 위주의 여성 형식사상이 낳은 국粹이라 할 수 있겠다.

이야기 하쓰미(66·여)와 그의 이웃 주민 2명, 도카시키설의 어머니·장구시소와 주민 고하구와 전기, 그의 어머니·그리고 배봉기 할머니가 살았던 '빨간 기파자분의 집' 주인 할머니와 하쓰미(62) 등을 만나 당시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빨간 지붕집' 딸의 회상

일본이 세계대전에서 밀리기 시작한 1944년 9월에 일본군이 도카시키·자마미·아카설에 자리를 잡았고 10월 10일에는 연합군이 무설에 공습하였다. 한국 여성들은 1944년 11월에 나하에 도착했다. 입을 벌리고 있



위안부들이 일본군인들을 상대하던 '빨간 지붕집'

년 생이라 이곳에 닿았을 때는 30살이 되어 그 자리에 저희들이 들어온다"고 하여 "대려운 것이 일본 군인"이라고 치를 떨었다.

도카시키설의 위안부 중에서는 배봉기 할머니와 아이로만 살아 남았다. 정통부 1945년 중에서 4명이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한다.

도카시키설에 있는 놀은 산꼭대기에는 청년의 끝이 있고 그 뒷 마치 오른쪽 오솔길로 들어가면 '백록담'이 서 있다.

1962년 3월 27일에 대장양분령 때 죽은 회생자들은 안치해놓은 것이다.

아이마다의 '오키나와의 할머니'에 의하면 도카시키설 사람들은 하루에 고향사람들이 찾아오면 물려주려고 그의 음성을 이 템에 안치했다고 적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밤에 새겨진 명단에서 하루에 40명을 찾았고 아모란과는 동사무소를 가 보았으나 하루에만 아

니나 위안부나 청용부의 유골이 따로 처리된 사실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또 밤에 새겨진 수많은 이름 중에 과연 위안부와 청용부의 이름이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 정신이상 걸려 배회

배봉기 할머니는 전쟁이 끝난 일본군과 함께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오키나와 본토에 다시 오인 위안부는 그곳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미군

군 상대의 위안부가 되어야 했다.

할머니는 미군이 상대할 때 죽은 줄만 알고 절망감에 빠졌다. 일본군은 청년들에게 산으로 피난하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멀리 뒤 디자 배에 실려 도카시키·자마미·아카설에 7개월 배치되었다. 그들이 도착하기 직전 도카시키의 여자청년들은 일본군에 대한 위안소 설치를 반대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 위안소가 이 고장을 상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에 쉽게 설득당했다.

위안부는 마땅에서 떨어져 있으면서도 오키나와의 나하 남쪽 이토미사와에는 청화관원, 청정관원에 세운 미 공원의 '한국기념관'과 비단이나 이문상수비의 '미가'에는 정신대에 관한 한마디의 말도 없다.

할머니가 배치된 도카시키설의 친구인 나가라였다. 그를 잘 봐드렸던 한국 여성들은 나가라였다. 그를 잘 봐드렸던 그들이 이곳에 살았던 것이다. 1943년 할머니가 29 때 '임을 빌리고 있으면 배나가 떨어지는 게' '돈을 빌이 빌 수 있는 곳'으로 데려와 준다는 말에 어떤 여자 소개인을 따라나섰다고 했다.

우리는 1988년 2월 19일 오키나와 나하에서 서쪽으로 50km정경에 있는 도카시키와 자마미설을 찾았으나, 하루에나 배봉기 할머니가 있던 곳이 도카시키설이다. 이 설에서 우자는 다카자토의 소개로 오키나와의 주인 배봉기 할머니가 태어난 곳은 이복망 충남이다. 기파와 후미코의 '한국 기파자분의 집'(1987년)이라는 논평을 보면 1943년 할머니가 29 때 "임을 빌리고 있으면 배나가 떨어지는 게" 되는 여자를 파서 키는 일이 저를 길들이고 착한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들이 위안부는 물론이고 청년들로 되었을 때는 그의 이전들의 군대와 조선인 위안부(1916년)에서 했던 한마디 말도 있다.

은성이 '스파이'가 좋았다고 했다. 29살에

여행을 떠나면서 살던 집보다 난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